

COVID-19 시기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체험: 포토보이스

김희경¹, 김현경², 박철희³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공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³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e-mail : hkk@kongju.ac.kr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이 COVID-19 시기 삶에서 체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탐구하기 위해 Latz의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시기에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체험을 포토보이스를 통하여 탐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COVID-19 팬데믹 중 독거 여성노인의 건강체험을 탐색한다. 둘째, COVID-19 시기에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도움을 탐색한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으로부터 개념적으로 포화되는 인원인 충분성이 확보되는 인원으로 8명을 임의 표집방법으로 D광역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이었다.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사진촬영과 면담이 진행되었다.

1. Intro. & 2. Method

1. Introduction

COVID-19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COVID-19 이환율과 COVID-19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추세이며, 여성의 수명은 남성에 비해 높아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높다. 반면 여성노인은 높은 연령기간에 비해 건강수명으로 지내는 비율이 높지 않다. 질병을 가진 여성노인은 의료서비스의 도움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나, COVID-19는 노인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COVID-19의 이환 위험으로 일상적인 외출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인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 체험을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체험 관련 사진을 활용하여, 친밀성, 신뢰, 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작용하여 심층적인 건강 체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 관련 어려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게 해 주고 정책입안자에게 강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독거 여성노인의 건강을 포함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간호 실무에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기반으로 건강체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2. Photovoice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3)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 4) 한국어로 듣고 말하기가 가능한 노인, 5) 연구 목적과 과정에 동의한 노인이다. 배제 기준은 1) 현재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2) COVID-19 양성 확진 노인, 3) 중증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이었다.

참여자의 수는 포토보이스 방법론 문헌에서 단 1명의 참여자부터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질적 연구와는 달리 이론적 포화가 아닌 개념적 포화를 적용하기 연구 개념에 따라 유연한 포화를 적용한다는 근거에 따랐다. 충분성이 확보되는 인원으로 연구자 간 회의를 거쳐 5명을 계획하였으며, 표집된 인원은 10명이며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는 8명이었다.

연구자는 대전지역 1군데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임의표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여성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소개 받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조력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자료 수집은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3. Themes & Conclusion

포토보이스 연구결과, 사진 120장과 면담 주제 12개와 주제 3개가 도출되었다. 소주제는 '사람보다는 자연에 기댐', '사물에 애착을 느낌', '분노를 독거하는 방에서 분출함', '외출이 어려워 답답함',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 '삶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침묵함', '소화력저하와 식욕부진으로 무기력함', '당뇨관리에 대한 의욕이 없는 자포자기', '신체적 응급상태를 감당하기 버거움', '외출감소로 인한 지남력 저하', '코로나로 상호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서운함', '먼 곳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애정'이었다. 주제는 '인간적 도움의 부재', '독거장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건강관리에 대한 무력감'이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의 사진으로부터 생생한 참여자의 건강 관련 어려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COVID-19 시기에 극도로 취약한 참여자의 건강관리 확대를 정책입안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을 포함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간호실무에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Key words): 질적연구, 노인, 여성, COVID-19

3.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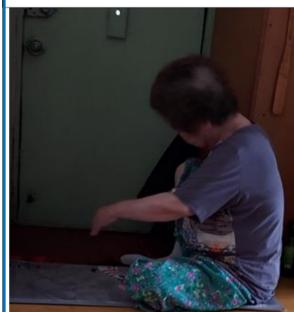
<p>소주제: 안 아픈데가 없음, 죽어서 썩는 것을 연습</p>  <p>참여자1</p> <p>나는 그냥 아픈 데 빼놓으면 하나 쓸 데 없어. 아픈 데 빼놓으면 쓸 데가 없다고 하도 아파서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다 시럽고 이런 데도 시럽고 발도 시럽고 막 그대 그러니까 조금 더우면 이게 저로 가게 해서 조금 틀고 조금씩, 조금 있다가 고고 그대 아우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아플까. 나 이 바람도 싫어 나는 선풍기 바람도.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죽어서 썩을 걸 지금 연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지. 나 얼른 그냥 1년만 살더라도 낫기나 하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피곤하고. 여기만 들어오면 이렇게 놓고 싶어.</p>	<p>소주제: 아픈 몸이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p>  <p>성함: 참여자3</p> <p>점질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물어보면 허리해야하고. 허리하면 어깨 해야하고 다 앉고 아리고 풀려. 어디는 한 번 그때 어떤 선생님인가 있는데. 그 의사가 뭐냐 나 있더라고 한의원 이제 허리 수술한 사람은 침 맞아야 안 듣는다고. 오지 말 소리 아니. 아픈거 조금 나서야(나야) 가고 싶지 않아요. 오래 탕기기도 수도 없이 탕겼지 내가 탕기는 건. 그건 그냥 안 낫고 갈수록 더해. 걸으면 조금 늦었으면 이런 데까지 그냥 다 이런 데까지도 아파. 나는 근무력증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아이 나는 뭐니 뭐니 해도 파스나 좀 줘야 좋겠어. 파스를 몇 장 이렇게 사면 그게 낙장씩 이렇게 들었잖아. 한 번 붙여도 모자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붙이면 이쪽 건 두 개 붙여요 그러니까 파스도 아이구. 약을 하도 먹어봐니까. 접어서 하도 먹으니까. 소화제 안 먹고는 소화가 안 돼.</p>	<p>소주제: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움</p>  <p>성함: 참여자 5</p> <p>잘 못 먹어도 그냥 막 억울하고 죽지 못 해서 먹어. 그냥 매일 누웠지만 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제 누워있다가 명. 테레비도 보다가 테레비도 보기 싫어 고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는데. 그때도 살고 있어. 죽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p>
<p>소주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되는 주거</p>  <p>성함: 참여자2</p> <p>여기가 좋으니까 이걸 비워야 해 다. 아직 돈이 안 나왔거든? 그래 내가 아들 막내 아들 왔잖아 엄마가 2년 더 살으면 87살 아니냐. 2년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방을 얻으려면 조그마한 거 빌라 얻으려면 아래 채 없고 이층은 못다니니까. 걱정되지. 좀. 혼자 살자고 이제 어디로 가나 싶고. 또 여기서 살다가 떴던 가면 또 만나기 사람들 사귀기도 늙으면 사귀기도 어려워. 여기서 몇십년 살았지. 다 알아 여기는. 여기는 시골 아닌 시골 도외지역 아니야 도외지역. 그래서 그냥 다 알고. 누가 죽으면 죽는 것도 다 알고. 누구는 잔치하면 잔치한 것도 다 알고.</p>	<p>소주제: 혼자 먹기 싫은 식사</p>  <p>성함: 참여자4</p> <p>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어쩌다 먹기는 먹어요. 밥 다 해놓고 가지 선생님들이 저녁까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고기는 또 안 탕겨. 고기를 이렇게 써는 거 봐도 안 먹고 싶어. 하하하 그래요 내가 또 가스 명수하고 해수 타라고 막 노상 대놓고 먹어. 조금 있으면 좀 내려가고. 내가 저기 이거 따는 거 바늘. 내가 다 바늘. 여기가 가득 하고 막 죽겠어 그러면 또 다 팩 치면 이 피가 여기가 새카만 하고. 설 재하면 조금 덜 하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는 저녁에도 볼도 안 켜고 그냥 콧물 펴. 볼 켜려가면 저까지 가야하니 귀찮아요.</p>	<p>소주제: 코로나로 멀어진 건강관리</p>  <p>성함: 참여자6</p> <p>보건소에서요 그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쯤 와서 파스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오고 던져놓고 가. 안 만나려고. 안 만나려고 던져놓고. 그전에는 들이서서 놀다 가고 그랬지. 얘기해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만나려고 저기 다 던져놓고 가버려. 저것만 누르고 가 버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코로나 무서워서 서로 안 좋은 게 들어가지 말재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글썽 조금 나아졌는데 또 퍼져. 조금 놓아준 게 그냥 막 퍼져. 그렇지 빨리 끝나면 세상 좋지. 아우 젊을 때는 젊은 사람들 때문에 얼른 끝나는게. 우리는 방에 들어앉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니까.</p>

Table 1. Themes and Subthemes from Photovoice exemplar

Conclusions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제를 발견하여 독거 여성노인을 위한 삶의 질 증진 정책 제언 및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IST) (No. 2020R1F1A1048449).